

Governance Opinion

< 일지테크의 군식구 >

코

스닥 상장기업 일지테크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1986년 설립되어 1992년 상장한 제법 오래된 기업이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회사는 아니다. 2015년 중에는 주당 15,000원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그 절반 수준인 7천원대 주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약 1천억원 수준이다.

눈에 띄는 회사는 아니지만 일지테크는 제법 탄탄한 강소기업이다. 국내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현대자동차에 주요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통령 표창과 국가품질경영대회 은상 등을 수상하는 등 업계에서는 실속 있는 알짜 기업으로 정평이 자자하다.

하지만 일지테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지테크에 먹여 살리고 있는 군식구들로 인해 일지테크의 진정한 가치가 많이 가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지테크가 먹여 살리는 군식구들

일지테크는 현대자동차라는 든든한 납품처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일지테크의 실적을 보면 다소 가웃하게 된다. 2015년 일지테크의 총 매출은 약 1,08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양호한 실적이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대폭 추락해 약 3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4년 일지테크의 영업이익이 약 75억원 수준임을 감안해 볼 때, 2015년 일지테크의 영업이익 적자 기록은 충격적이다. 다만 수입수수료와 잡이익 등으로 약 152억원의 기타수익을 달성하여 2015년 약 10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약 177억원임을 고려해 볼 때, 2015년 영업이익 적자는 더욱 안타까운 대목이다.

2015년 일지테크의 영업이익 적자는 매출원가의 급격한 상승에서 기인했다. 2014년 일지테크의 매출총이익은 약 217억원 수준이었는데 반해 2015년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매출총이익율로 보면 2014년 매출총이익율은 약 21% 수준인데 2015년에는 9%에 불과하다.

일지테크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중국 자회사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도 총 매출액은 3,048억원으로 2014년의 2,445억원 대비 상당히 증대되었지만, 영업이익은 약 18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0억원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당기순이익은 약 86억원으로 2014년 당기순이익 279억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 정도면 어닝 쇼크 수준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단위 : 원)

구분		2015년	2014년
개별	매출	108,800,795,602	103,846,187,712
	영업이익	-3,232,844,380	7,455,236,644
	당기순이익	10,902,973,086	17,741,070,122
연결	매출	304,829,511,895	244,511,079,697
	영업이익	18,519,511,361	29,538,090,268
	당기순이익	8,577,330,458	27,894,337,971

그런데 일지테크의 매출이 1천억원 수준인데 연결로 했을 때 3천억원 수준이란 점을 통해 일지테크의 중국 자회사인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의 매출이 모회사의 일지테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는 2011년 현대자동차의 중국 법인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일지테크가 북경에 설립한 자회사로 당시 약 184억원을 투자해 설립했다. 이후 일지테크는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에 채무보증 등 지속적인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등 핵심 자회사로 육성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일지테크는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를 위해 CNY162,000,000원(한화로 약 280억원)과 USD 122,900,000(한화로 약 1,390억원)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일지테크가 반영하고 있는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의 장부가액은 약 203억원 수준이지만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의 총 자산은 3,100억원 수준으로 일지테크 총 자산 규모인 1,842억원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의 매출도 크고 규모도 크지만 정작 실속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의 당기순이익이 약 5.9억원 적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는 중국 현지 공장이기 때문에 모회사가 그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굳이 높은 수익성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15년 일지테크도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중국 현지 법인마저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대체 수천억원의 매출이 다 어디로 새어나간 것일까?

(단위 : 원)

구분	국내사업(일지테크)	해외사업(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
외부수익	108,800,795,602	228,728,372,216
부문간수익	-32,699,655,923	-
당기순이익	10,902,973,086	-592,225,883
자산총액	184,173,419,100	310,040,361,812

일지테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3개의 특수관계자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아이제이에스, 케이앤씨, 그리고 디앤피이다.

우선 아이제이에스부터 살펴보자.

2014년 4월 일지테크는 금형사업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일지테크는 주요 사업역량인 자동차부품사업에 보다 집중하는 전략적 결정에 따라 금형사업부를 매각했으며, 그 매각 상대방이 바로 아이제이에스였다. 당시 일지테크는 약 126억원에 금형사업부를 아이제이에스에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제이에스는 2014년 3월 설립되었다. 즉, 일지테크가 금형사업부를 매각하는 시점에 설립된 것이다. 어쩌면 일지테크로부터 금형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제이에스는 자본금 20억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구준모	200,000	50%
구지은	100,000	25%
구지후	100,000	25%

아이제이에스의 최대주주 구준모는 일지테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구준모 대표이사이며, 구지은, 구지후는 구준모 대표이사의 자녀로 추정된다. 참고로 구준모 대표이사는 1974년생으로 만 41세이다. 구준모 대표이사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아이제이에스의 지분 50%를 나눠 갖고 있는 구지은, 구지후는 미성년 자녀로 추정된다.

그런데 아이제이에스의 실적이 놀랍다.

설립 2년차인 2015년 아이제이에스는 약 49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135억원에 당기순이익 119억원을 달성했다. 이익률로 본다면 영업이익률 27%에 당기순이익률은 24% 수준이다. 제조업으로는 경이로운 수준이다. 그것도 설립 이듬해인데 말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제이에스의 주요 매출 거래 상대방이다. 2015년 아이제이에스는 일지테크의 중국 자회사인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와 거래로 약 317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일지테크와 거래로 약 2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5년 전체 매출의 약 68.5%를 일지테크와 그 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달성했으며, 그 중에서도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에 대한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약 64% 수준이다. 그렇다면 아이제이에스가 달성한 1백억원 이상의 순이익 역시 상당 부분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는 2015년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말이다.

다음은 케이앤씨를 살펴보자.

케이앤씨는 2011년 5월에 설립되었다. 참고로 일지테크의 중국 자회사인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가 설립된 것이 2011년이다. 케이앤씨는 자동차용 프레스 판넬 제조 및 수출과 자동차 부품 제조설비 수출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일지테크 및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의 사업과 상당한 연관성이 보인다. 그리고 케이앤씨의 최대주주는 구준희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1981년생인 구준희는 구준모 대표이사의 동생이다.

케이앤씨의 2015년 매출은 401억원이다. 그리고 158억원의 영업이익과 14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영업이익률은 약 40% 수준이고 당기순이익률은 35% 수준이다. 아이제이에스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케이앤씨의 주요 거래 상대방 역시 일지테크 및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이다. 케이앤씨는 2015년에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와의 거래로 약 37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일지테크와의 거래로 약 6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와 일지테크에 대한 매출의 합이 케이앤씨 전체 매출을 초과하고 있다, 사실상 케이앤씨는 매출을 전적으로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 및 일지테크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케이앤씨의 141억원 당기순이익 역시 일지테크와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가 만들어준 셈이다. 그런데 2015년 일지테크는 영업손실을, 그리고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디앤피다.

디앤피 역시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가 설립된 2011년 6월에 설립되었다. 주된 사업 역시 자동차용 프레스 판넬 제조 및 수출로 케이앤씨의 사업과 유사하다. 디앤피의 최대주주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구대희로 구준희와 마찬가지로 구준모 일지테크 대표이사의 동생이다.

디앤피의 2015년 매출은 228억원이며 영업이익은 78억원, 당기순이익은 76억원 수준이다. 절대적인 수치로는 디앤피의 매출과 이익규모가 앞서 살펴본 아이제이에스나 케이앤씨에 비해 작아 보이지만 이익률의 관점에서는 영업이익률 34%, 당기순이익률 33%로 아이제이에스나 케이앤씨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디앤피 역시 2015년 매출을 전적으로 일지테크 및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와의 거래로 발생시켰다. 디앤피는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와의 거래로 약 22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일지테크와의 거래로 약 3억원의 매출을 일으켰다. 앞서 살펴본 아이제이에스나 케이앤씨와 놀랍도록 닮은 모습이다.

일지테크, 밀빠진 독에 물붓기?

일지테크와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 그리고 일지테크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인 아이제이에스, 케이앤씨, 디앤피의 2015년 당기순손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2015년	2014년
일지테크	10,902,973,086	15,219,067,024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	-592,225,883	8,004,360,593
아이제이에스	11,872,864,734	4,283,654,948
케이앤씨	14,103,577,520	4,163,310,744
디앤피	7,589,738,147	7,894,160,400
합계	43,876,927,604	39,564,553,709

일지테크와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의 순이익을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수준인 반면 아이제이에스와 케이앤씨는 상당한 순이익을 증가를 기록했다. 그리고 디앤피는 전년과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이익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총 순이익을 합하면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순이익이 증가한 모습이다.

결국 일지테크와 북경일지차과기유한공사가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인 아이제이에스와 케이앤씨, 그리고 디앤피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희생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지테크는 4,800여명의 주주들의

몫을 희생시켜 최대주주인 구준모 대표이사 자신과 형제들, 그리고 어린 두 자녀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다.

일지테크는 대구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최봉영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하지만 최봉영 사외이사는 2015년 일지테크가 개최한 24차례의 이사회 가운데 단 6차례에 참석했다. 그리고 도재욱 감사는 상근감사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과 3월 사이에 5차례 이사회에 참석한 것이 전부이며, 그나마도 2월 26일에 2개의 안건을 다루었으므로 4일만 감사로서 활동한 셈이다.

허수아비 사외이사와 유명무실한 상근감사의 직무 태만 속에서 일지테크는 오너 일가의 재산 증식을 위해 수많은 주주들을 몫을 강탈했다. 잡초를 숙아 내지 않으면 곡식이 제대로 여물 수 없는 법이다. 일지테크 경영진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인 주주들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잡초를 숙아 내는지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해야 할 때이다.